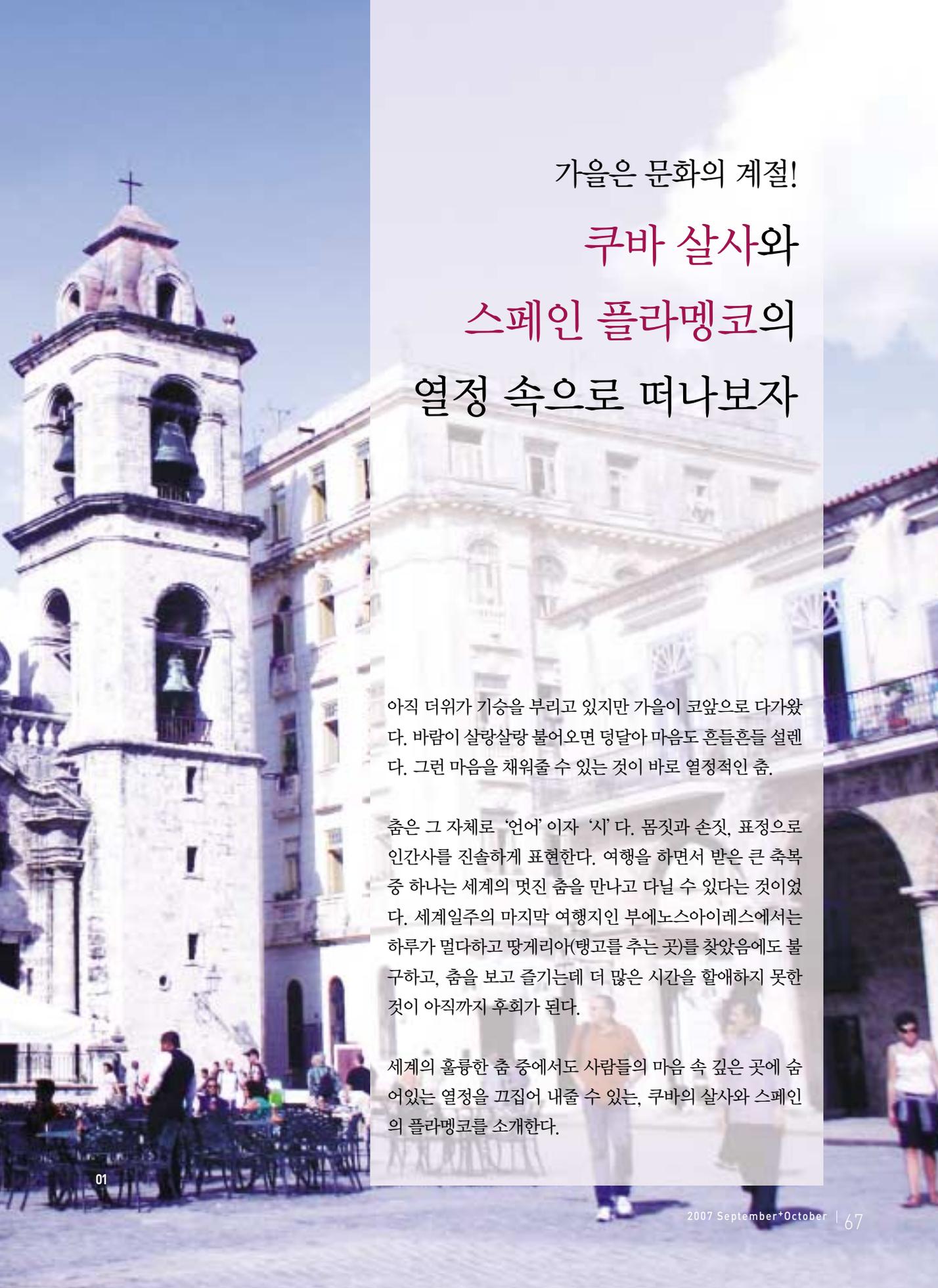




Salsa & Flamenco



가을은 문화의 계절!

쿠바 살사와 스페인 플라멩코의 열정 속으로 떠나보자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덩달아 마음도 흔들흔들 설렌다. 그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정적인 춤.

춤은 그 자체로 '언어' 이자 '시' 다. 몸짓과 손짓, 표정으로 인간사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여행을 하면서 받은 큰 축복 중 하나는 세계의 멋진 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일주의 마지막 여행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땅게리아(탱고를 추는 곳)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보고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후회가 된다.

세계의 훌륭한 춤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열정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쿠바의 살사와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소개한다.

쿠바 '흥겨운 음악과 신나는 살사'

체 게바라, 헤밍웨이, 녹아들 것 같은 시가... 쿠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살사다.

쿠바 사람들에게 살사는 춤이라기 보다는 생활이다. 살사를 추는 이들을 살사 바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유치원에 있는 꼬마들도 혼자서, 또는 친구와 손을 잡고 스텝을 연습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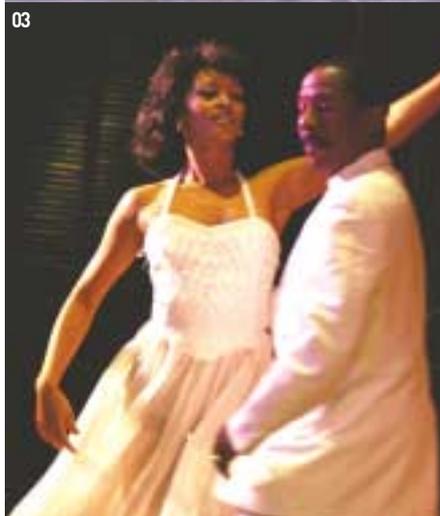
쿠바의 아바나에 도착하던 날, 살사로 밤을 달군다는 호텔 플로리다의 문을 두드렸다. 과연 이런 곳에 살사 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한 로비를 지나 종업원이 알려준 곳의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아프리카 리듬이 강하게 묻어 나오는 쿠바 음악의 흥겨움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신나게 살사를 추고 있었던 것!

경쾌한 스텝, 건강한 미소, 넓지 않은 공간을 폭발시킬 것 같은 열기! 쿠바 카테일인 '쿠바 리브레'를 한 잔 시켜놓고 그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레게 머리를 멋지게 한 쿠바 남자가 다가와 "테 구스타 바일라르?(너, 춤추는 것 좋아하니?)"라며 손을 내밀었다. "네 구스타 무초(물론 좋아하지)!"라고 한 뒤 일어나 부지런히 발을 돌려 스텝을 밟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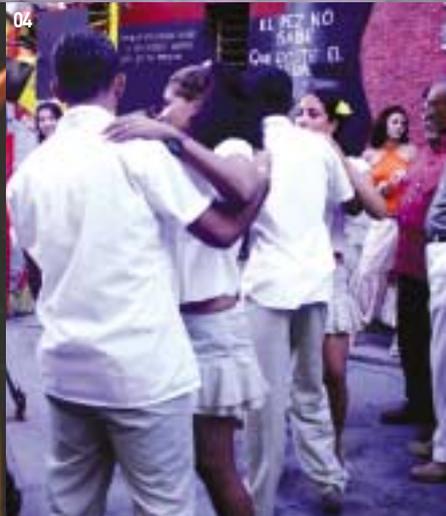
쿠바에서 살사를 즐기겠다고 한국에서 미리 살사 레슨까지 받아놓았는데 연습과 실전은 어찌나 다르던지. 쿠바 남자



02



03



04

의 스텝을 따라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쿠바 음악에는 흑인음악의 리드미컬한 흥겨움과 백인음악의 매끈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몰라토들이 쿠바에 많이 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쿠바 땅에는 스페인 식민시대 동안 스페인 사람들이 몰밀듯이 들어왔고, 이후 아프리카사람들이 노예로 쿠바 땅을 밟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음악은 하나로 합쳐져 어떤 음악장르보다 화려한 쿠바 음악으로 탄생하게 됐다. 다음 날이 되어도 살사는 계속 컷가를 맴돌았다. 한적한 길을 걷다가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는데 싶어 뒤를 돌아보면 환청이었고, 환청인가 싶어 뒤돌아보지 않고 걷다 보면 어디에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쿠바는 살사와 음악의 천국이었다.



01 쿠바의 아바나 풍경 02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03 쿠바는 실사와 음악의 천국 04 쿠바에서는 어느곳이라도 삶사와 만날 수 있다 05 플라멩코에는 삶의 기쁨과 슬픔이 담겨있다 06 발로 추는 사빠테아도(Zapateado)에서 인생을 본 듯 했다

스페인의 집시의 애환이 스며있는 '플라멩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춤으로 노래하는 예술, 떠돌이 집시들의 애환이 스며있다는 플라멩코. 플라멩코를 설명할 때, 토케(기타)와 칸테(노래), 바일레(춤)가 조화를 이루는 춤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화'라는 단어보다는 온 몸으로 토해내는 '정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춤이 플라멩코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칸테, 그 칸테에 맞춰 타닥거리는 구두소리.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 같은 심오한 표정과 허공을 헤매는 손동작으로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이 바로 플라멩코의 매력이자 힘이다.

플라멩코의 본고장 세비아에 도착하던 날, 플라멩코 극장으로 달려갔다. 여름이 되면 새벽까지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 때문인지, 플라멩코 공연

시작 시간은 밤 10시였다. 9시 40분, 조명과 잘 어울리는 색의 상그리아를 한 손에 들고 무대 앞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눈과 귀가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기타 반주에 애절한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선가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발로 추는 사빠테아도(Zapateado)가 시작한 것이었다.

천천히 물 흐르듯이 시작한 사빠테아도는 기타(Toque)와 노래(Cante)에 맞춰 빨라졌다. 빨라진 템포와 함께 남자 무용수의 춤사위도 화려해졌다. 화려하다고 해서 동작이 큰 것은 아니다. 최대한 절제된, 손짓 하나에 인생을 응축한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이라고나 할까.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빛하며, 손가락 끝에 모든 힘을 준 채 허공을 휘젓다가 바닥이 부서질 듯 발을 내딛는 그의 연기에 숨이 턱하고 멎는 것 같았다. 바닥을 치는 그의 발 구르는 소리는 가슴을 팍팍 치고 그 느낌은 온 몸으로 퍼져 갔다. 그의 관능적인 몸짓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에 넋을 잃을 것만 같았다. 어느 부분에서는 인생의 단조로움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위기와 클라이맥스가 펼쳐진다. 춤을 보면서 인생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말 한 마디 없었던 공연이었지만, 그의 몸짓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렵듯이 알게 했고 살아있다는 자체에 감사하게 했다. 숨이 꿀뱃 넘어갈 것 같던 그 열정, 그리고 다시 담담한 일상으로의 회귀는 빛나는 보석처럼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